

장흥, 가족분뇨 부속도 무료검사

장흥군은 가족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족분뇨(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속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가족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능가는 연 2회, 신고규모 능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방문 제출하면, 분석결과서를 2주 내외로 받을 수 있다.

담양군·장성군 주민복지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

담양군 주민복지과와 장성군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지난 15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는 담양군과 장성군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두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 직원 20명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관당 2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발전에 힘을 모았다.

담양군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 문화의 정착과 인근 지자체 간 협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장성시 전남체전 내일 개막...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전남"



'지역발전·주민복지 헌신' 함평군민상 수상자 4명 선정

내달 4일 시상식

함평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해 온 2025년 함평군민의 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지역개발상 임범수씨, 도의상 박민숙씨, 교육문화상 박차영씨, 농수산진흥상 남종우씨 등 4명이다.

지역개발상 수상자 임범수씨는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송에도 적극 참여했다.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봉사활동, 치안 유지 공로도 인정받았다.

도의상 수상자 박민숙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세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효행을 실천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21일까지 4일간 열전...23개 종목·2만명 참여 성화 봉송·각종 공연·드론쇼 등 볼거리 풍성

장성군 최초로 개최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17일 백암산 국기단에서 제64회 전남체전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 행사가 진행됐다.

국기단은 조선시대부터 유교식 제례를 지냈던 유서 깊은 장소로 전남체전 성공 개최와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제천례를 봉행한다.

주선녀가 채화경에서 채화한 성화

는 첫 주자인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에 전달된다.

성화 봉송에는 총 222명의 주자들이 참여한다. 장성만의 지역 특색을 살려 '장성호 수상 봉송', '필암서원 유립 봉송', '삼무대 영내 봉송' 등이 이뤄진다.

출정 봉송은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출정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면 6명의 주자들이 황룡강 꽃길과 용작교 구간을 지나 공설운동장 헬로우시티스타디움까지 달린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에서 시작되며 가야금 병창과 대금 연주 등이 식전 공연으로 펼쳐진다.

최종 성화 점화는 장성 출신의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이 맡는다.

개회식이 끝나면 김연자, 김태연, 린, 손호영·김태우, 정동원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가 총출동하는 축하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공연 이후에는 '성장장성'을 주제로 한 '멀티미디어 드론쇼'가 창공에 펼쳐진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재미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체전네컷, 서예 체험, 편백 제품 만들기, 장성군 친환경 농특

산물 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전남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입원·관람객 규모는 총 2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23개 종목 가운데 불꽃(화순), 사격(나주)을 제외한 전 종목이 장성에서 경기를 치른다.

폐회식은 21일 오후 3시 흥길체육관에서 열린다.

종합 시상식에 이어 차기 개최대회기 전달, 성화 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남의 도약에 기여하겠다"면서 "체전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스포츠축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다육가드닝 전국대회' 개최

봄꽃 축제 기간 18~27일까지 꽃강길 전시존서 열려

화순군은 '2025 화순 봄꽃 축제'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화순 꽃강길 전시존에서 '2025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주최·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전국 다육식물 애호가들의 출품작이 하나씩 꽃강길 일원에 전시되며, 4월 18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10개 팀의 작품을 선정,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다육가드닝과 다육아트 2개 분야로 구분해 ▲아름다운 수형 ▲각각적 표현력 ▲화분과 꽃에 어울림 ▲화순을 표현한 주제와 연관성 ▲독창성, 균형

성 ▲소재와 다육식물 활용성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쾌함이 만개한 화순 꽃강길에서 개최되는 '2025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는 '2025 화순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반려 식물인 다육을 널리 알리고, 체험 부스 운영 및 판매도 진행하며, 다육식물과 함께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통해 정서적 위안과 스트레스 완화 및 반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주영원 기자

담양, 초록에 물들다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
소원을 품은 대나무, 상상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
2025.5.2.금~5.6.화 (5일간)
죽녹원 일원

주최·주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장흥 '안정적 수돗물 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노후관로 개량·배수관 신설 등 확충... 2040년까지 단계적 추진

장흥군은 2040년 목표로 마련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역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상수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5년 주기로 단

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장흥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으로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경비 절감 및 양질의 수질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량, 배수관 신설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

계획은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가 가능하도록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 공급시설 안정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관 신설 및 개량 및 지방상수도 전환 등에 필요한 기반을 도입하는 등 수도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장흥군 미래상에 걸맞은 상수도 행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장학회, 관외 학교 입학한 학생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재)화순장학회는 올해 3월 관내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관내 또는 관외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청은 올해 11월까지 가능하다. 대상자의 보호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복규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 확대함으로써 화순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 올해 첫 모내기... 풍년 농사 기원



영광군은 지난 15일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실시한 군남면 반인리 정권옥(50) 농가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올해 첫 모내기는 작년에 비해 나흘 정도 빠르며,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되어 6월 중순까지 약 9,200ha의 논에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생종 벼 조기 재배는 4월 하순에 이앙해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9월경부터 발생하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벼가 쓰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확비용 증가,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고,

추석 전 햅쌀 시장의 선점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세일 군수는 "해가 갈수록 이상 기후, 병충해 등으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여건이지만, 올해도 풍년농사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 주길 바란다"며 "영광 쌀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벼 못자리 농사가 벼농사의 반(半)이다."라고 말하면서 4~5월 초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육묘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종민 기자